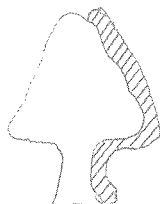


환경보전, 새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자

— 국민, 정부, 기업이 해야 할 일 —



정 홍 식

오늘날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그 특징이 오염의 가속성, 이중성, 확산성, 국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염원이 하나의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가속을 지니고 확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대책 또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문제까지도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한 후 갖가지 장·단기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오염현상은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고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환경오염현상은 최근에 발생됐다고 보다는 과거 2~30년동안 누적된 것이 오늘에야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지난날을 돌이켜서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로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경제발전, 성장우선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환경오염규제라고 하는 것은 수출전선의 장애요인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80년 이전까지 환경문제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지 못하였고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국민까지도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왔다.

각종공해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도시나 상수원 부근에 들어섰고, 대규모로 조성되는 공단역시 오염방지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중반부터 상승되기 시작한 소비생활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대신 각종 환경오염물질들을 배출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오염정도는 어떠한가.

수질의 경우 4대강 중 한강을 제외하고는 81년이후 수질이 점차 악화되었다. 상수원수로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겨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수장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팔당댐의 수질도 갈수



올바른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과 실천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다.

기에는 3급수에도 미달된다.

폐기물의 경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처리비용이나 처리장소, 처리기술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대도시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특히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처리능력부족으로 조업단축을 우려하는 지역까지도 있다.

토양오염의 경우 대부분의 국토가 일부 공단지역이나 광산을 제외하고는 안전하다고는 하나 대기오염의 심화, 폐기물의 토양침입, 농약, 비료 사용량의 증가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토양오염이 심화되면 그 침투수에 의해 지하수 오염까지 유발하는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가 불가능하고 그 효과도 장기간 지속된다.

해양오염의 경우 주요해안에 각종 공해다발업체가 들어서서 오염물을 배출한 결과 마산의 경우 공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서해안 개발이 가속화되면 서해안의 오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듯 오염이 전국토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 대처는 어떠한가.

이제는 제도적인 조치나 홍보만 가지고서는 오염된 국토를 치유하기에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 또 사후대처로서 기술개발이나 환경공학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도 안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두 환경을 회복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것은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과감한 실천도 요구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알아보자. 먼저 정부는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환경정책을 마련해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 실천의지없는 대안은 거의 쓸모가 없으므로 정책이 선언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지식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전적으로 믿는

“기업은, 과도한 폐기물·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생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내에 환경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사람도 거의 많지 않다. 따라서 환경정보를 모든 국민이 만족할만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문제점을 깨닫고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할때 환경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둘째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규제에 있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로, 자원의 재생과 회수에 힘써야 한다. 갖가지 시행착오와 변경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1회용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도 내구성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키우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상품제도를 빨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네째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환경오염방지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기업들이 과도한 폐기물과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 쓸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사용하기를 바란다.

이와같은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국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기업은 먼저 폐기물발생의 최소화와 배출량의 감소에 노력해야 하며, 환경을 고려한 제품생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의 환경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처음에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공장지역 주민들에게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천하는
물자절약운동,
지역차원의
공해반대운동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위와같은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 기업내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제품의 생산계획부터 판
매·폐기물 처리까지 환경을 고려하는 일
은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
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에 체
결될 갖가지 환경협약은 이를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무엇을 실천할 수 있
을까.

첫째,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과소
비 추방은 사회문제이기도 하지만 환경문
제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물자를 아껴쓰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에너지 생산에 소요되
는 자원을 아끼면 그 만큼 우리의 환경문
제 해결은 손쉬워진다.

또한 건전한 환경윤리의식을 고양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
위를 삼가해야 한다. 요컨대 먹는것, 입는
것, 소비하는 것을 모두 단순하고 실용적
인 것으로 전환해야 하며, 제품을 구입할

때도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물품을 구입하여, 이러한 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

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만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 활동을 각 지역별로 전개해야 한다.

공해반대, 환경보전은 일부 여유있는 중
산층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운동이나 건강
확보 운동이 아니다. 생존권 차원의 문제
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 공해반대 수준은 개
인적 이기심의 발로에서나 경제적인 동기
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전국민이 피해자라
는 생각에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는 자
세로 참여함이 옳다.

관심만의 환경운동에서 참여·실천적인
자세로의 국민적 전환이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열쇠이다. **72**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